

설계인력의 과잉공급도 문제이다

Oversupply of architects also creates problems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설계분야는 심각한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 대부분의 중규모 건축사사무소는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몇몇 아틀리에 형태의 소형 건축사사무소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니다. 매달 운영비를 조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사무소가 있는가하면, 그나마 직원월급도 제대로 못주는 곳도 여럿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온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여파로 주택시장을 비롯한 건설시장 전반이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세계경제불황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설계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과다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흔히 건축사 1인당 국민숫자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건축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이와 같은 주장은 당위성이 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건축사는 약 17,000여명에 이른다. 이에 비해 미국은 약 96,000명의 등록건축사가 있다. 단순비교로는 우리나라보다 약 5.6배 많은 숫자이지만, 미국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약 6배가 많고 국가 총생산이 13배 많은 것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건축사는 미국보다 2배이상 많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건설경기가 호황일때는 이와 같은 숫자가 큰 문제가 안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건설분야가 GDP의 15%~20%를 차지하는 시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기껏해야 5~7%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한다면, 현재 건축설계분야는 확실히 공급과잉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경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건축설계인력 과잉생산의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50개의 건축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약 75개의 대학에서 5년제 건축설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약 3,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4년제의 건축교육프로그램과 4년제의 설계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할 경우 건축설계분야로 배출되는 인력은 전문대학을 제외하고도 매년 적어도 6,000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120여개의 건축설계프로그램에서 매년 약 9,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다. 인구만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건축설계인력을 미국보다 약 4배이상 배출하고 있고, 경제규모까지 고려한다면 약 8배 이상이나 많이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즉,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1,000명 미만의 설계인력만 배출되면 족하고, 그렇다면 5년제 프로그램으로는 20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건축설계인력의 과잉공급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고민이나 논의를 해본 기억이 없다.

기존의 4년제 건축교육제도는 나름대로 건축시장의 변화에 대해 적응력을 갖는 합리적인 제도였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이나 취업가능성, 미래의 비전 등 다양한 고민을 통해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건축설계'와 '건축공학'이 이분화된 교육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선택이 거의 불가능하다. 5년의 건축설계교육은 건축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이론상 다른 선택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20개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대학의 5년제 건축설계프로그램이 이미 75개에 달하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적다.

대학들도 무분별한 건축설계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자제해야 한다. 교육자로서 취업도 안되고 장래의 희망도 별로 없는 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또한 '5년제 프로그램'이 마치 '5년 이상의 교육'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UIA나 Canberra협정 등의 국제기준에서도 교육의 동등한 질을 말하는 것이지, 방법과 형태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을 선도할 만한 국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유독 건축교육에서만은 별로 구속력도 없고 참가국가도 몇 안되는 국제기준에 얽매어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현재 혼돈상태에 있는 건축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건축여건과 시장특성에 적합한 경쟁력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사실 지금 건축설계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미안하고 안쓰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남들보다 1년을 더 학교에 다니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은 커녕 당장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쥐꼬리만한 봉급으로는 결혼준비할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니 말이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건축에 대한 동경과 기대가 한탄 환상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계 모두의 사심없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이인구 / Phee, Eon-ku
대한건축학회 회장

- 약력
- 현,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서울대, 일리노이공대(ITT), 미시간대 졸
 - 대우건설/사카고 SOM 근무
 - 캠브리지대/미시간대 연구교수